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용두사미 [느헤미야 13]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 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 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20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 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

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30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이 처음에 굉장하게 시작하다가 끝에 별 볼일 없이 끝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두사미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을 사용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수고에 감사해주길 기대하지만 그 누구도 감사해주지 않고 아이들을 식사시간 내내 싸우기만 한다면 그것을 용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도시를 재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망쳐놓는 것을 봅니다. 용두사미입니다.

1, 망쳐진 타협 (13:4-14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중 하나인 엘리아십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적들 중 하나인 도비아에게 성전에 딸린 방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비아는 성벽재건을 맹렬하게 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위협한 인물이었습니다. 4절을 통해 우리는 도비아에게 방이 제공된 이유가 엘리아십의 가족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충성은 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순위에야만 합니다. 엘리아십은 세상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들은 길바닥에 버려져야만 합니다.

2, 망쳐진 안식일 (13:15-22절)

안식일을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백성들은 장보는 일을 포함해 안식일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속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은 악한 일이란 것을 상기시킵니다. *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 13:17).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 하나가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란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 13:1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좋은 것들로 채우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3, 망쳐진 결혼 (13:23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스돗, 암몬, 모압)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느헤미야 13:26). 우리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대항해 대담한 행동을 취합니다. 때때로 죄를 대항하기 위해 이렇게 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죄를 대항하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찾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고 지도하는 일에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끕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모두가 실패했을 때 신실한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관계에 머무는 사람으로 창조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고 그들이 하나

님을 떠나게 놔두었던 것과 는 반대로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한번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을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분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